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여름

2008년 23호



CAU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 contents

2008년 제23호 여름

시론

3. 중앙대동문 자부심으로 약계위기 극복해 나갈 것
| 조찬휘 | 15회 부회장 · 서울특별시약사회장

동문회 소식

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행사경과

정기총회

6. 2008년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동기별 소식

8. 졸업 30주년 행사를 마치며...
| 이상준 | 21회 동기회장
10.卒業 40년만의 나들이...
| 황공용 | 11회 동기회장

지부 소식

12. 성남시 중대 약대 동문회
| 이경준 | 26회 지부회장

동기회 소식

14. 벗이여! 어서 오라! 78동기회! 만세!
| 최민규 | 26회 동기회장

약국도움이야기

16. SI 요법(self intensifying)란 무엇인가?
| 양덕숙 | 28회 동문

약학박사 프로필

18. 2008년도 약학박사

만평

19. 씨를 뿌리는 사람은 수확을 거둘지라!
| 김기명 | 18회 본지 편집위원

문학산책

20. 대관령(大關嶺)
| 김학철 | 26회 동문

중영시선

22. 隱几(은계) : 팔안장에 기대며
| 허인회 교수 | 4회동문

23. 2008 대한약사회장 입후보 동문 프로필

24. 회원동정

26. 발전기금 조성내역

30. 동문회비 및 기금납부자

31. 편집후기



중앙대동문 자부심으로 약계위기 극복해 나갈 것



조 찬 휘 서울특별시약사회장
(15회) 부회장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대의를 지키소서!”

세종 5년(1423년) 2월 19일, 경복궁에서는 원로대신들로부터 초급관료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머리 숙인 체 외침을 계속하고 있었다. 관료들의 그칠 줄 모르는 외침을 들으며 젊은 왕은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 쉬고 있었다. 당시 세종의 형이었던 양녕대군은 법으로 금지된 사냥을 하고 타인의 침을 흡지거나 심지어 사람을 살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런 양녕대군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대의명분을 내세운 대신들은 젊은 세종을 잘 길들여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하겠다는 내면의 저의를 깔고 있는 것이었다. 세종이 이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초보 왕이 신하들을 가차 없이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새롭게 조직의 리더가 되면 한동안은 진통과 갈등을 겪기 마련이다. 새로운 리더에게 쏟아질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수구세력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충돌해야 한다. 저절로 신하들이 새로운 군주에게 머리를 조아리지는 않는 법이다. 그래서 세종이 택한 길은 늘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권한 위임으로 한결 여유가 생긴 세종은 한글 창제, 자력루 제작, 갑인자주조, 아악정리와 같은 일종의 혁명적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한글창제, 자력루 제작의 경우 대신들이 책에서나 보던 일이었고, 아악정리는 천년에 한 번 할까하는 군자의 사업인 지라 세종은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젊은 인재들을 등용해 ‘열심히 하면 나도 꿈의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세종은 이렇게賢者(현자)의 지혜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권한위임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새롭게 창조해 냈다.

위기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오는 법이다. 현자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愚者(우자)는 힘겨운 환경에 자신 스스로를 파괴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어느 시대나 늘 위기라고 했다. 우리 약사사회도 마찬가지다. 1년전에도 위기였고, 2년전에도 위기였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그것이 곧 기회라 생각한다. 우리 약사들은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타 직능보다 더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중앙대 동문회는 최다의 우수한 약사 인력을 배출한 명실공히 최고의 동문모임이다. 때문에 중앙대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모아지면 이것이 곧 전체 약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필자는 30년간 약국을 경영하며 우리의 힘이 무엇이고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리고 힘겨워하는 약사들을 위한 머슴역할을 하고자 서울시약사회장에 섰다

2007년 서울시약사회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들고 나왔던 캐치프레이즈가 ‘약국경영활성화’였다. 이제 약국은 경쟁의 중심에 들어섰다. 아직도 우리의 경쟁상대가 타 약국이라 생각하는 약사는 없을 줄로 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다양한 마케팅전략과 선진판매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마트’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옹크리고 있는다면 약사들 삶의 터전이 외부환경에 떠내려갈 판이다. 그래서 다양한 경영강좌를 통해 회원들이 약국경영을 좀더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계획, 7000~8000여 명이 강의를 수강해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배양했다.

올해는 선량한 약사를 괴롭히고 있는 5대약(면대약국, 전문카운터, 담합약국, 일반의약품 난매, 조제료할인행위) 일소를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약사운리의식을 제고하고 약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선량하게 약국운영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약사들이 마음 편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약국의 이와 같은 자정노력은 지역사회에서 약사와 약국이 신뢰 받는 곳이 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또 ‘복약지도’라는 약사들만이 지니고 있는 차별화된 무기를 통해 마트에 빼앗겼던 고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빈도처방 50대 품목을 선정해 복약지도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며, 빈도가 높은 50대 품목을 선정해 약사가 환자를 상담할 때 이 매뉴얼을 보면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10대 집중품목을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는 상담사례 100선을 담은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활동도 결국 중앙대동문의 힘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중앙대동문회의 힘과 역량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절름발이 성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말이다. 반면 중앙대 동문들이 선봉에서 서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여준다면 서울시약사회의 정책은 분명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 자부한다.

서울시약사회장이기 이전에 중앙대동문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나’라는 개인 때문에 중대동문 전체의 얼굴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 나갈 것이다. 중대 동문 역시 서울시약사회장을 믿고 적극적인 지지와 더불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질책을 부탁 드린다.



신년교례회 및 제 4 차 회장단회의

- 일 시 : 2008년 1월 12일 오후 6시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유정사 회장, 손의동 학장,
김기홍, 오세형, 최종목, 권혁구, 박호일, 김창종, 김광일,
이대윤, 조규동, 김 구, 조길도, 현수홍, 허사길, 선우영환,
신상직, 장재인, 조종형, 이경옥, 김승재, 함삼균, 김영희,
고석일, 정찬헌 사무총장



여동문회 신년 월례회

- 일 시 : 2008년 2월 26일 오전 12시
- 장 소 : 세종호텔 수선화룸
- 참석자 : 유정사 회장, 이경옥 여동문회장, 정덕화, 강옥희, 강희윤,
도민숙, 연정희 참석



부총장 면담

- 일 시 : 2008년 1월 16일 오후 2시
- 참석자 : 유정사 동문회장, 이경옥 여동문회장, 정찬헌 사무총장,
김영희 여동문회 총무



제5차 회장단회의

- 일 시 : 2008년 3월 15일 오후 6시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유정사 회장,
김광일, 이대윤, 조규동, 황공용, 김 구, 윤대봉, 임영식,
장재인, 조중형, 김애경, 이경옥, 박기배, 김영희,
정찬헌 사무총장
- 안 건 : 1. 최종이사회 준비의 건 2. 동문회 운영의 건
 3. 약학대학 발전기금 모금의 건 4. 기타토의 사항



2008년 전지이사회

- 일 시 : 2008년 4월 27일 오전 7시
- 장 소 : 경북 봉화
- 김기홍, 오세형, 최종묵, 권혁구 고문, 김일혁, 손동헌, 허인회, 명예교수, 염정록 교수, 손의동 학장을 비롯 1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집결하여 오전 7시 경북 봉화를 출발했다. 봉화군청에 도착하여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봉화군청내 식당에서 엄태항(14회) 군수 대접으로 점심식사를 마친뒤 봉화5일장으로 이동하여 봉화특산물을 비롯 봉화시장을 구경하고 봉화군내 닭실전통마을(총재유물관)과 청량산 청량사를 탐방하고 저녁식사는 봉성내 참숯돼지숯불구이를 먹고 서울로 출발했다. 이날 유정사 회장, 김 구, 조찬휘, 박기배 부회장의 후원금으로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제6차 회장단회의

- 일 시 : 2008년 5월 31일 오후 6시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유정사 회장,
조규동, 황공용, 이관하, 노덕재, 이호섭, 이호훈, 김 구,
문재빈, 박동규, 최창엽, 현수홍, 김종렬, 임영식, 김승태,
김용의, 조찬휘, 김성지, 신상직, 장재인, 주완표, 이경옥,
김현태, 박기배, 정찬헌, 차달성, 유대식, 정덕기, 하충렬,
김승재, 조석현, 김정수, 이상수, 양덕숙, 김영희, 고석일
- 안 건 : 1. 모교 재단법인 두산그룹에서 인수
 2. 대한약사회장 출마 후보 단일화의 건

희망 “두산그룹 재단인수 중앙대학교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애석 “대한약사회장 동문후보 단일화 이루지 못해”



이날 개최사를 통해 유정사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약학대학 재학생 및 올해 졸업생들이 참석하여 동문의식을 느낄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5월달에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 재단을 인수하여 앞으로 희망이 보이고 중앙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우리 모두의 염원인 약학과 신축도 빠르시일내 진행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하고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단일화를 하지 못해 죄송스럽고 무한 책임의식을 느낀다”고 인사했다.

이어 축사에서 손의동 학장은 신임 재단 이사장 취임사를 인용하면서 “앞으로 재단이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중앙인의 화합을 통하여 10년후 100주년을 맞이 하였을때에는 5대 사립명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6년제 준비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약학과 신축은 두달 이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어 총회는 2007년도 중요업무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과 박호일 감사의 감사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 200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기타토의 사항으로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김기홍(12회) 동문, 문재빈(13회) 동문에 대한 동문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한데 대하여 김기홍(1회) 고문과 유영후(7회) 고문의 질책성 질의와 김명섭(5회) 자문위원의 배경설명, 그리고 유정사회장의 사과발언을 위시하여 열띤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폐회직전 모교제창을 통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기홍 고문, 오세형 고문, 최종목 고문, 김채운 고문, 임완호 고문, 유영후 고문, 권혁구 고문, 권태섭, 박호일 감사, 손의동 학장, 한덕용 명예교수, 김종갑 명예교수, 손동현 명예교수, 김일혁 명예교수, 허인희 명예교수, 김창중, 황완균, 김대경 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최진석 부회장,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윤여국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 정점선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 이진희 부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 엄태순 회장,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 고숙희 회장,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서울동문회 김성순 회장,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 곽순애 회장, 한국약사회 고미지 회장, 서울시 약사회 남수자 부회장 등 내외빈 150명 참석 했다.



총장 공로패



권혁구(9회) 일산대학약국



강옥희(12회) 동화약국

총동창회장 공로패



나사모회



약수회

학장 공로패



ROTC회



약제반

동문회장 공로패



- 곽유환(8회) 용인지부 / 천리약국
- 유병태(11회) 광명지부 / 성민약국
- 이창욱(19회) 안산지부 / 화성반월약국
- 박상용(22회) 중랑지부 / 메디온백세약국
- 정진호(22회) 구로금천지부 / 정진호
- 김태두(24회) 강남지부 / 세화약국
- 김애영(24회) 동대문지부 / 성민약국
- 손영상(26회) 안양지부 / 영진약국
- 고석일(30회) 인천지부 / 성모메디칼약국



졸업 30주년 행사를 마치며...



이 상 준 (21회) 동기회장

감회가 정말 새롭다, 흰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 만나 반가웠음은 생략하고, 행사를 개최하게 된 과정과, 행사로 이루어진 이 귀한 동기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이야기로 졸업 30주년 행사를 마치는 소감을 대신하고자 한다.

2007년 10월 어느 날 김수배 전회장, 김중효 일동제약 상무, 송진용 삼아제약 공장장이 과천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우연히 졸업 30주년 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하게 나에게 추진위원장을 해보라는 제안이 나오면서 일이 시작되었다. 참고로 본인은 약국을 한 경험이 없고 약국을 하는 동기들과 가깝게 교류를 하지 못해서 약국 하는 동기들이 95%인 점을 감안하면 추진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었다. 즉, 약국을 경영하는 동기들의 이해의 폭이 좁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단 누군가가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위원장을 수락하고 그 자리에서 12월 중에 행사를 갖자는 대략적인 일정을 잡은 후, 동기들의 호응을 알아보기 위해 100명의 동기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30주년 행사에 참석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 없었다. 겨우 5명이 이-메일, 전화 등으로 답을 보내온 것이다. 포기를 해야 하나... 실망스런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11월 2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국약사대회가 있어 많은 동기들이 참석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 때 동기들을 만나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힘을 내서 다시 한 번 100명의 동기들에게 전국약사대회에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는 글을 띄웠으나 역시 답신이 오는 친구는 몇 명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전국약사대회가 열리는 날 동기들

이 삼삼오오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하여 졸업 30주년에 대한 동기들의 반응을 듣게 되었다. 또한 여러 동기들이 격려 전화 및 이-메일을 보내줘서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1대 회장이신 류승률 전 회장님을 포함해서 김수배, 김중효, 송진용, 그리고 내가 추진위원이 되어 동서올터미날(류승률 전 회장님 약국 근처)에 모여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하고 일정을 2008년 1월 19일로 정하여 추진을 하게 되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73학번은 2007년이 졸업 3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졸업의 회기 년도는 3월부터 다음 년도 2월까지 이므로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유효하므로 2008년 1월 19일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자체 판단 아래 행사를 갖게 되었다. 추진 결과는 33명이 행사에 참석을 하였고, 참석이 어려운 동기들 30명은 회비를 납부해주는 놀라운 호응을 보여줬다. 결국 여러 동기들이 만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시간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선 듯 긍정적인 답신을 못한 것이다. 행사의 내용은 “수”, 또는 “A”를 받기에 손색이 없었다. 또한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한덕용 은사님, 김중갑 은사님, 손동헌 은사님, 김일혁 은사님, 허인회 은사님, 임철부 은사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주옥 같은 덕담을 주시고 식사를 같이 하며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유정사 동문회장님, 정찬현 사무총장님, 손의동 학장님이 참석하여 자리도 빛내 주시고 실리도 찾으시는 실적을 올리셨다. 또한 22회 대표로 익수제약의 이준상 사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선배님들께는 송구스럽지만 이제 한국 나이로 55세가 되는 우리들로서는 정상적인 사회활동 기간이 기껏해야 10~15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참 짧은 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지나간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우리 나이 또래가 애,

경사가 많은 때 이므로 동기들이 서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애, 경사를 같이 하겠다는 것을 동기회 회장 당선 공약으로 삼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래서 향후 사업계획은 애, 경사에 초점을 맞춰서 동기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 시간이 허락하는 동기들에 한해서 매 짝수 달 첫째 토요일에 만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모임을 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동기들도 참석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애·경사를 챙겨주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년 회비를 각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평상시도 서로의 소식을 자유롭게 전하기 위해서 동기회 café(Café명-중약사랑73, Site-http://cafe.naver.com/caup73)를 개설 하였으며,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행사 때 찍은 사진을 통해 행사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애써준 중앙대 약대 총동문회 박은희 실장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의약분업으로 약국이 어려운 상황인데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준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은 되지만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동기들이 동참해 주기를 이 지면을 통해 부탁하는 바이다.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 먹고 했으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별히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바로 전 회장 김두수,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한 김중효, 글씨도 잘 보이지 않을 텐데 문자 메시지 보내느라 애쓴 김수배, 정신적인 지주

가 되어주신 류승률 초대 회장님, 그리고 재정을 담당해 준 송진용 총무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인천 지역을 책임지고 담당해준 전명선 전전 회장이 이 행사를 시작하는데 큰 용기를 주었다. 앞으로도 우리 동기들은 café를 중심으로 평상시에 정보 교환을 하고 애, 경사를 같이 하는 가장 멋진 동기회가 될 것을 다짐해 본다.





卒業 40년만의 나들이...



황 공 용 (11회) 동기회장

1963년 약관 20세의 나이로 中央大 藥大에 입학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 40주년이라니 믿기지 않는 세월의 흐름이 현실앞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약대를 졸업하고 藥師로 보낸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났지만 아직도 인생의 종점을 멀리두고 藥業 전선에 묵인 발들로 인해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어렵게 동기생들이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2007년 10월 3일 긴장된 모습으로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출발한 중앙약대 11회 동기생들의 모습은 40년전의 그 젊음을 회상하듯 감회가 역력했다.

이번 졸업 40주년 기념 여행은 참으로 어렵게 이루어졌다. 아직도 대다수의 회원이 약국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1박 2일의 일정을 빼어내는데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사리 참석한 동기 회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을 털어버리고 자연속에서 지나온 40년을 돌아보고 또 동기생들과 나누는 학창시절의 이야기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꽃을 피웠다.

첫날 들렀던 강원도 영월의 장릉과 청령포는 인생의 무상함과 권력의 공포를 한껏 느끼게 했다.

청령포는 12세에 왕위에 오른 조선 6대 왕인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으로 강봉된후 유폐되었던 곳으로 동, 남, 북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서쪽만 험준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섬과도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17세 되던해 사약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그 시신을 모신곳이 장릉으로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 거사를 하던 당시 집현전을 중심으로한 사육신의 계유정난은 아직도 성삼문 등의 사육신과 한명회 등의 수양대군파의 권력투쟁의 무상함을 회상시키게 했다.

저녁 7시에 도착한 강원랜드의 하이원호텔은 해발 670M의 고지여서 인지 상쾌한 공기와 펼쳐진山下가 아름다웠다.

강원도의 정취를 한결느끼게 했다.

9시간 가까이 여독에도 불구하고 졸업 40주년 기념연에 참석한 동기들의 모습은 다 활기에 차 있었다. 특별히 11명 여자동기생들은 모두 다 한복 차림으로 임해서 아름다움이 너무도 우아했다.

서세양 부회장의 사회로 황공용 동기회장의 인사, 유정사 약대 동문회장의 격려사 및 손의동 학장의 축사는 멀리온 회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먼 강원도 까지 축하하기위해 바쁜시간을 내 주신 총동창회 유정사 회장과 손의동 학장, 정찬현 사무총장에 대해 동기들의 고마움을 포함과 함께 학교와 총동문회에 발전기금을 각각 전달했다. 아울러 국전 서예 입선을 수차례한 김미자 동문이 준비한 與天無極

(여천무극)이란 휘호의 액자를 약대동문회에 기증해서 한결 동기회를 빛내주었다.

이어서 이어진 행운상과 여흥은 졸업 40년만에 60을 훨씬넘은 나이에 도 불구하고 밤 12시 가까이 계속돼서 아주 즐거운 여행의 첫날을 장식했다.

10월 4일 다음날 일찍 조식을 마치고 돌아본 정선 화암동굴은 그야말로 장관 그 자체였다. 지하에서 1000평에 가까운 광장과 중유석들은 수십만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지고 있었으며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으로 외국의 어느것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귀로길에 들린 양반촌인 아라리촌의 모습도 또한 기억에 남는 추억이었다.

이번 여행에 참석한 회원들은 하나같이 아쉬워하며 언제 또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겠느냐는 반문을 하며 기념여행을 마쳤다.

이날 참석한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가나다순)

고승하, 김미자, 김승업, 김창중, 김철홍, 김학진, 남복석, 박찬희, 박희경, 서세양, 서영복, 신명승, 이명옥, 이명자, 이철규, 장헌소, 조명숙(제천), 조명숙(완산), 채신자, 최계순, 최민재, 하정선, 홍금자, 황공용, 황문상





성남시 중대 약대 동문회



이 영 준 (26회)지부회장

유서 유서 깊은 남한산성 자락에 신도시 분당과 판교를 품고 있는 성남시 동문회는 친구세대가 잘 어우러져 있으며 남한산성의 깊은 유서만큼이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창 때 80 ~ 90명에 이르던 회원이 지금은 약 60명으로 많이 줄었으며, 의학분업이후 서로 바쁜 관계로 자주 모이지는 않지만 대다수 회원이 20년 넘게 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친목만큼은 돈독합니다.

초대 정상규 회장을 필두로 이영민(10회), 박상희(11회), 김 구(12회), 최병호(12회), 이영조(12회), 신명희(12회), 최석봉(12회), 이명로(14회), 김정수(15회), 고이태범(17회), 김철수(22회), 김항만(23회), 손현우(25회) 동문회장까지...

여러 선배님들이 동문회를 위해 많은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다면, 후배들은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과 호응으로 서로 존중하며 의지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문회가 돈독한 친목을 이어갈 수 있는 특징이자 자랑이라면 등산모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등산모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름하여 '묻지마 산악회'입니다. '묻지마'라는 단어에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 묻지마 관광과는 다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름이 '묻지마' 인지 궁금하시죠?

첫째, 우리 산악회는 못 가는 회원에게 왜 못가냐고 절대 안 묻습니다.

-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둘째, 비가와도 가냐고 묻지 않습니다.

- 산행의 장소와 날짜가 결정되면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묻지마 산악회'가 되었습니다.

한밤중, 새벽녘 뜻만 맞으면 그냥 출발입니다...

처음 산행을 시작한 것은 약 6년전 청계산이었습니다.

일행이 모두 모이기까지 1시간 정도 걸렸죠...그러나 일찍 온 분들은 자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산에 오니 너무 좋다고 다들 이구동성이었습니다.

그 후로 퍽킵킵 근교산을 10번 정도 오르고 나니 좀 더 멀리 있는 높은산에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한 산이 영암에 있는 월출산이었습니다.

당시 월출산에 가 보신 회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리가 워낙 먼 관계로 당일로 갔다 오기에는 좀 부담이 되었으며, 항상 약국에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월출산에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동문회장이신 김철수회장도 '이번 기회에 장거리 산행을 해보자, 여약사도 1년에 3번정도 찾을 만큼 아름다운 산이라는데 남자들이 자존심이 있지...' 하며 적극 추천하였죠. 당시 제가 총무였는데 초행길인 산을 많은 회원들을 이끌고 가자니 저도 부담이 많았습니다. 미리 사전 답사를 갔다 올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3~4년 전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 산에 가려다 엄청난 폭우로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자료를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받은 경험이 있어 인터넷으로 전라남도 도청사이트에 들어가서 월출산 자료를 신청하였더니 정말 너무나 다양한 자료들... 그렇게 원했던 월출산 지도부터 맛집, 온천, 전남 유명 관광지 안내문 등.... 한보따리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들을 받아드니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이제 됐다!!!

27인승 리무진 버스도 예약하고, 인원도 모집됐고, 무박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아침에 일찍 만나기 어렵고, 늦게 오는 분도 있고, 전날 개인적으로 늦게까지 업무를 보시는 동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돈이 좀 들더라도 무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결행의 날, 토요일 저녁 열시가 되니 등산배낭을 둘러맨 동문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흥분된 표정들이었고 이미 만나서 한 잔씩들 하고 오시는 동문들도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가방에 챙겨온 술을 꺼내 권하시는데 다음날 산행을 위해 마시지 말아야 하지만 약국에서 나왔다는 해방감과 친구를 만나 반갑다는 그 마음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산 밑에 이른 새벽에 도착하니 벌써 도착한 산악인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한쪽에선 랜턴에 불을 켜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군대 비상소집과 같은 분주하지만 정돈되고 차분한 분위기가 었습니다.

아직 금강산을 가보지 못했지만 남한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월출산은 정말 아름답고 신기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걱정하시던 박상희 선배님이 오르시니 다른 동문들도 '선배님께서 오르시는데 후배인 내가 안 오를 수 없지!' 하면서 모두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려가긴 너무 아깝다고 내친 김에 모두 종주까지 하였습니다.

종주 후 하산주로 막걸리에 먹는 파전...

땀흘린 후에 마시는 술은 역시 막걸리가 최고였습니다.

온천을 하고 맛집식당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하니 예약은 안되고 오는 순서대로 기다려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도착하였더니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에 부득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음식의 고장답게 옮겨간 집의 음식도 너무 맛있고 풍족하였습니다.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각자의 18번 노래를 들으며 행복한 마음으로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이 산행을 시작으로 사량도 지리산, 내변산, 석룡산, 설악산, 지리산, 주왕산, 용봉산등 지금도 성남의 '묻지마 산악회'의 산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조만간 해외원정 산행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자년 새해 동문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벗이여! 어서오라!
78동기회!
만세!

友



최민규 (26회) 동기회장



‘모래시계’ 화려한 외출 등의 드라마나 영화 속의 그 시대를 누

구보다도 실감하는 우리 78학번 동기들! 어두웠고 암울했던 그 시절에 면학보다는 시대의 아픔을 먼저 느껴야만 했던 친구들!?

79년 대통령 시해사건, 12/12사태, 80년의 봄, 광주 민주화운동을 지켜보면서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운명에 불안해하던 그 때 그 시절의 무력한 젊음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교복을 입고 입학식에 참석했던 그 때, 너댓명만 모여도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각 각의 실험반과 각종 써클 활동(아코러스 칼라무스 합창반, 약수, 약창, 약총, 약협 등)을 하며 나름의 젊음을 불사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80년 초에 불어온 학원 자율화로 학도호국단이 폐지되면서 학생회장의 자유선거가 부활되어 학생회장으로 김기형이 선출되었으나 한학기도 못 채우고 다시 지명제 학생회장으로 바뀌었고, 학생회 임원들은 몇 달 뒤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고 수배령이 내려 어쩔 수 없이 잠적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휴교령에 교문 앞에는 공수부대 탱크가 버티고 서 있던 그 때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어느 덧 올해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주년 입학과 졸업 기념식을 조병일, 진희역의 주선 아래 모임을 가진 후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이젠 고인이 되어 버린 김광욱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몇몇의 동기들이 모임의 필

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경남 도의원을 지낸 한갑현 동기회 총무의 추진력과 친화력으로 작년 가을 남한산성 등산을 결행한 후 78동기 모임을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현재 인터넷 daum 카페 (<http://cafe.daum.net/jyak78>)를 통해 전국에서 많은 동기들이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카페를 풍성하게 해주는 김학철, 윤용혁 시인 그리고 권송상, 김안식, 안철중 등등 많은 동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주옥같은 글과 음악을 올려주고 있어 모두들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동기 중에는 모교에 남아 열정적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심상수, 황완균 두 교수가 있어 우리 78동기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퍼스트 디스의 대표 오옥희는 팜2000에 탑재한 약물 검색 프로그램 DIK-PLUS를 개발하여 처방검토와 복약지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제약업계쪽으로 진출한 국제약품의 이순교 부사장, 환인 제약 중앙연구소장 조용백, 화일약품 권송상상무, 하이텍 팜 대표 김정수A, 친환경분야 (주)HB하우징 대표 정태형 그리고 약사회 업무에 바쁜 3선의 진희역 송파구약사회장, 서초구약사회장 김정수B, 인천 계양구 문형철회장과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꿈의 목표인 SUB-3를 달성한 선우일원, 그에 못지않은 김화기, 박주돈, 이영준등 마라토너들과 김재준, 노수원, 손영득, 이상우, 이은길등의 테니스 매니아들, 그리고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안재용, 이기평, 이재권장로, 식의약품안전청의 김관성팀장, 미국 약사가 된 노영우, 안양시 동문회장인 손영상, 동기들이 큰일을 당하면 먼 거리 마다 앓고 달려오는 부산의 백낙기, 대전의 박정래, 제천의 조병호와 하재일, 원주의 안명덕, 천안의 황원선 그리고 권희재, 김봉일, 김재정, 노병일, 박재길, 반수호, 소순용, 이재신, 이창훈, 한현욱 등등 의리파 친구들과 처방전 수용의 전국 1위 홍성의 윤광중을 비롯하여 대다수 동기가 전국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각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78동기회 발족이후 각 지역별 모임에서 동기들을 초대하여 그 지역의 산을 오르며 30년 지기의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강원도 동기들(김학철, 김형남, 성정희, 이승현, 이재권, 최태영)의 초대로 선자령에서 평생 잊지 못할 멋진 산행을 하였으며, 특히 등산모임은 김화기, 박

전원, 신현동, 이영준을 주축으로 매 달 산에 오르고 있으며, 골프모임도 안재용, 양승훈, 윤광중, 이강욱, 조필련을 중심으로 월례모임을 하고 있고, 남학생들과는 별도로 여자동기모임은 수 년전부터 김유선, 부성심, 오승주, 이강욱, 이순아, 조필련등이 바쁜 약국 생활중에서도 자주 만나 소식을 전해주고 있으며, 노수원, 이승현, 하재일을 중심으로 조만간 동기들의 해외여행의 기회도 갖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30년은 78동기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8동기들이여!?

반백년을 살면서 그동안 외롭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왔고 앞으로도 닥쳐오겠지만 이제는 앞만 보고 내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옆과 뒤도 챙기면서 서로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동기가 되도록 다 같이 한마음이 되서 뛰어봅시다!

학창시절 지나친 젊은 혈기로 마음 아프게 해드린 교수님들께 깊이 사죄드리며, 평생의 좋은 가르치심을 주신 은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좋은 시절 같이 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차경문, 김근호, 이현준, 김광욱, 김명수의 명복을 빌며, 항상 자기 위치에서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기들에게 지면상의 문제로 이름을 다 올리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올해로 입학 30주년을 맞이한 78동기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주 만나 새로운 30년의 추억을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SI 요법(self intensifying)란 무엇인가?



양 덕 숙 (28회) 부회장

2000년대 들어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의 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점하고 있다. 그중 골다공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근육의 위축으로 근막동통 증후군 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고령화에 의한 근골계질환 의약품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에서도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인한 척추측만증이나 경추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 외용 의약품 첩부제 시장만 해도 2006 현재 연간 1415억에 달하고 있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용 첩부제는 치료효과보다는 치료보조제로 그 효능의 한계가 있다.

또한 동양의학적 접근방법인 경락이론이 도입된 침술은 그 시술이 가진 한계성인 장소와 시간 그리고 제도와 행위로 인하여 효과가 뛰어난에도 동양 3국 중에 그 이용 빈도가 가장 낮다. 이에 연구자 그룹은 서양의학적인 근막경선적인 이론과 동양의학적인 경락학적 이론이 같이 도입된 SI 기법을 창안하여 이를 일단의 환자그룹에 적용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SI기법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 도입된 SI 기법이란 생체 전기의 흐름(galvanic current)을 이용하여 특정부위에 인위적으로 전기화학전위(electrochemical potential)를 증가시켜 체내의 물질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인체의 흐트러진 조화와 균형을 바로 잡아 인체의 항상성을 회복시키는 전위적 치유방법이다.

본 기법에서는 인체의 병적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강화기법과 균형기법을 사용한다. 강화기법은 주로 근육에 적용하며 균형기법은 근골격계와 내장계에 적용한다.

근육강화기법(muscle strengthening technics)은 경직된 주동근의 이완을 길항근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타의 기법은 경직된 주동근의 이완을 목표로 한다. 즉 전기자극이나 파스 첩부 마사지 등으로 풀어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완된 근육을 강화시키지 않

으면 또다시 경직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즉 치료는 되지 않고 주무르고 난 이후의 시원함만 잠깐 있을 뿐이다.

그러나 SI 기법은 반대근육인 길항근을 강화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율이 높다.

기법의 내용은 첫째로 위에서 설명한 근육 강화기법을 기초로 전신적인 균형에 초점을 두어 균형과 통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근골격계 균형기법(muscle and skeletal balance technics)이 있다. 이것은 인체의 불균형 상태를 그 원인에 따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인체를 시상면상과 관상면상으로 나누어 시상면(sagittal plane) 상에서는 척추만곡의 변화를 중요시하고 관상면상(coronal plane)에서는 나선형적 균형과 삼각형적균형을 중요시한다. (그림1)

따라서 근골격계의 불균형과 통증과 관련된 증후군을 조정하고 완화하여 자연치유력을 높인다.

두 번째 내장계 균형기법(visceral technics)은 근막경선적 이론에 경락학설에 근거한 침술이론을 도입한 기법으로 내장계의 불균형상태를 조정함으로써 각 장기의 자연치유력을 높이고자 한 기법이다.

그 구체적 적용기술로는 수기(manipulation), 기기(Instrument), 부착(spiral point taping)의 방법이 있다.

기기의 원리는 양극과 음극을 이용한 평류전류를 적용 반응점에 접촉함으로써 인체에 회로를 만들고 생체의 화학전위의 증가와 물질이동을 촉진하여 노폐물이나 통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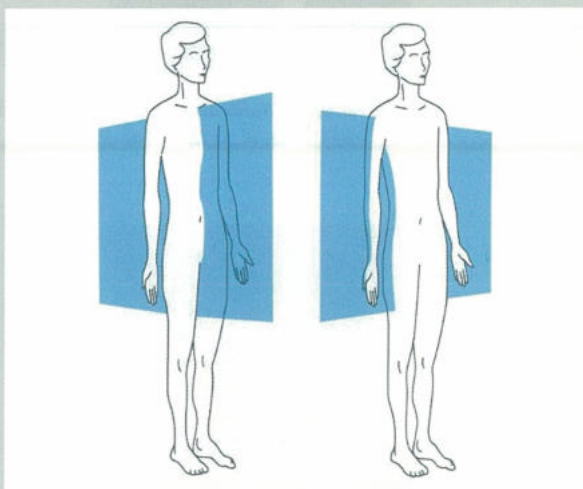
원인물질 등 인체의 비정상적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SI기법에서 실제 사용하는 기기는 신경주위세포(perineural cell) 자체에 직류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과 인체의 세포는 압전(piezoelectricity)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전류를 흐르지 않고도 양극과 음극성을 띤 자극만으로도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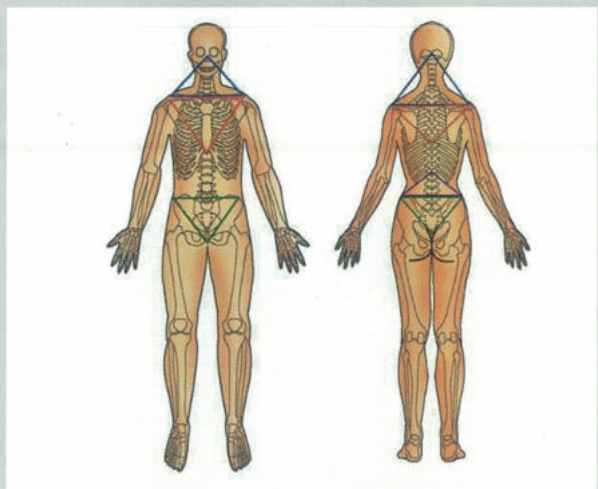
테이핑을 부착하는 이론적 원리는 나선형의 원리이다. 인체 나선형구조가 만들어내는 힘은 자연계 최고의 정화 원리로 나선형계단의 동선의 최소화, 태풍의 원리, 태권도의 주먹지르기도 이 나선형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테이핑 이론은 인체가 불균형상태라는 것은 이 나선형의 흐름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SI테이핑을 부착하여 이러한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SI 요법은 서양의학적인 근막경선적인 이론과 동양의학적인 경락학적 이론이 같이 도입한 것으로서 실험결과 유의성있는 결과를 보았다.

이미 미용 패취제로 생산되는 본 테이핑은 손과 발, 어깨, 무릎 등 주로 환자를 쉽게 볼 수 있는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향후 약국에서 의약부외품으로도 입하면 급만성 질환에 단독 혹은 병용요법으로 치료효과도 높이고 환자의 고객서비스를 배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약국경영활성화를 기하는 일환으로 사료된다.



<그림1 : 시상면과 관상면>



<그림1 : 삼각형적균형점>



정찬헌 (20회)

비마취상태의 Guinea Pig에서 유발시킨 IgE-매개 천식의 즉시 및 후기 반응에 대한 Flavonols의 억제효과



김정일 (30회)

백수오의 항산화 및 항염 활성



박선영 (36회)

배양한 고양이 식도 상피세포에서 산에 의해 유발된 상해반응에 대한 Rosiglitazone의 방어기전



이민석 (37회)

Novel Sustained-Release Delivery Systems for Leuprorelin Employing PLGA Microspheres



한인희 (16회)

나노 리포좀을 이용한 genistein의 국소 전달



정기차 (30회)

Cordyceps militaris에서 분리한 새로운 항진균단백질의 정제와 특성 및 유전자 크로닝



정병욱 (37회)

탈계 및 대계에서 유래한 Hemocytes의 Phenoloxidase 활성



김경원 (33회)

Aromatic Sulfonamide ceramide 유도체의 합성 및 세포독성

2008년도
약학박사

Profile



씨를 뿌리는 사람은
수확을 거둔지라!

동문회의 결집
언제 들어도 청겨운 말



김기명 (18회) 본지 편집위원

대관령(大關嶺)



김학철 (26회) 동문

대관령은 강릉을 지켜 주는 산이요,
 동해는 앞길을 열어주는 바다라.
 옛 부터 임영 터에 사선이 놀아,
 그 문화 그 인정이 으뜸이었네.
 자랑하자 강릉 살기 좋은 곳 자랑하자 강릉 살기 좋은 곳.
 마음모아 새살림을 꽃 피워 보세.

황금찬 작사 한동환 작곡의 “강릉 시민의 노래” 1절이다.

임영은 임할 임(臨), 큰 바다 영(瀛) 이라고 하여 큰 바다가 임하는 곳 즉, 강릉의 옛 이름이다.

사선은 녀 사(四) 신선 선(仙)이라고 하여 신라 때의 네 화랑(花郎)을 일컫는 말이다. 곧 영랑(永郎) 술랑(述郎) 안상(安詳) 남석행(南石行)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네 화랑이 강릉에 와 무예를 닦았으니 ‘옛 부터 임영 터에 사선이 놀아’ 라고 표현했나 보다.

오늘은 3월 3일 삼짇날,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는다는 때이다.

오늘 내 고향 강릉에 봄눈이 내린다. 봄이 놀러왔다 동장군의 기세에 놀려 다시 돌아가 버린다. 폭설(暴雪)이다. 온 도심 전체에 하루 종일 눈이 내린다. 내 고향 푸른 동해 바다에도 흰 눈발이 날릴 것이다. 대관령을 말해서 무엇 하랴. 대관령 북쪽 선자령 능선에도 눈이 쌓일 것이다. 밤이 되면 그칠까 하여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 보니 아

파트 가로등 밑에 함박눈이 소리 없이 여전하다. 서설(瑞雪)임에 틀림없다. 봄눈은 예로부터 상서(祥瑞)로운 눈이라 하여 복되고 좋은 일이 있을 조짐이 있다 한다. 나라 전체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모두에게나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대관령(大關嶺)은 내게 눈물과 아쉬움과 찬란함과 환희와 아릿함과 그리움을 가르치는 큰 스승이다.

대관령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강릉시와 평창군을 잇는령(嶺)이 아니요, 영동(嶺東)과 영서(嶺西)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아니다.

그 옛날 울곡 이이 선생님이 어머니 신사임당의 손을 잡고 한양으로 가기 위하여 험한 산길을 오르시던 그 대관령 옛길에 들어서면 뻑뻑이 들어찬 나무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나는 그리움에 하늘을 쳐다 볼 수 없다.

구 영동고속도로가 있는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난다. 어머니는 십 여 년 전 내 고향 강릉에서 세상을 하직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머니의 고향은 아버지와 같은 경기도 여주(驪州)땅 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영정을 가슴에 안은 채 이 영(嶺)을 넘어야만 했다.

3년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향 경기도 여주(驪州)땅 선산(先山)에 어머니를 묻고 돌아오는 장의차에서 나는 숨죽여 울고 있었다. 대관령 굽이굽이 돌아오는 장의차 안

에서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술 한 잔을 부어 주었다. 바깥은 칠혹 같이 캄캄한 어둠이 내리고 장의차 안은 험하니 빈 것만 같아 대관령을 내가 넘는 것인지 대관령이 나를 넘기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밤, 그 날 밤 장의차 안에서 아내가 따라주는 술 한 잔에 내 목올대가 뜨거워져 몸을 어쩔 수 없었다. 대관령은 눈물이었다. 대관령은 그날 이후 그리움이 되어 나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왔다. 대관령은 그 밤 이후 아릿함이 되어 내 고향 바다에 와 있다.

대학시절 공부를 하러 서울로 갔다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나는 어김없이 내 푸른 고향바다가 그리워 몸살이 났다. 모교인 약대가 있는 흑석동을 벗어나 강남터미널로 향하면 어느새 내 마음은 대관령을 향하고 있었다. 맑은 날 대관령에서 내려다 본 내 고향은 동해의 망망대해가 저 멀리 눈앞에 아스라이 펼쳐져 온 천지가 창해(蒼海)다. 구름이 대관령 산굽이를 감싸는 날이면 발아래 펼쳐진 운해(雲海)에 나는 또 얼마나 마음 조렸던지. 늦은 밤 고속버스가 대관령 정상에 올라 내 고향 강릉을 향해 내려가는 그 순간을 나는 어이 잊으랴. 강릉 시내의 야경(夜景)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별빛이 알알이 박힌 것만 같아 눈앞에 펼쳐진 성해(星海)에 얼마나 감격하였던가. 때로 안개가 자욱이 내리면 무해(霧海)가 장관을 이루는 곳!

이제 그 대관령에 지금은 설해(雪海)가 펼쳐져 있다. 백두대간 준령 내 고향 대관령에서 바라보면 온통 설산(雪山)이다. 온 산이 설해(雪海)다. 온 천지가 천지설(天地雪)이다.

지난 2월은 내 평생에 잊지 못할 행복한 달이었다. 나는 그 곳으로 내 30년 지기 친구들을 강원도 동기들과 함께 초대하였다. 두 팔 하나 가득 벌려 뜨겁게 벗들을 포옹했다. 강원도에 사는 친구들이 대관령 북쪽 겨울산 선자령 산행을 함께 하였다. 새벽부터 일어나 내 고향을 향해 달려온 30년 전 동기들! 숨이 멎었다. 호흡이 멎었다. 우리가 만나던 그 순간! 대관령 그 거센 바람도 숨을 죽이고 뿜뿜 거리던 선자령 풍력발전기 그 거대한 풍차도 잠시 멈추어 섰다. 동기 시인 윤 용혁은 눈 덮인 선자령 산을 오르다 새봉에서 그 날의 감격을 '아! 선자령'이라는 시로 토해 내었다.

아! 선자령



윤 용 혁 (26회) 동문

삼십년 시간을 동어매 괴나리봇짐 속에 가득 담고
토해내는 벗님들의 거친 숨소리,
빙화에 덮이 되어 은빛설원 융단에 켜켜이 깔다.

산마루 풍차는 세월을 돌리다 돈키호테 창에 찢려
윙윙 울부짖어 산허리를 퍼져나가 그 괴성 동해바다
출렁이는 파도를 가르며 물보라 되리라.

머리를 관통하는 바람, 눈앞에 펼쳐진 하얀 세상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상고대 옷을 벗고 목장의 청아한 방울소리 고드름 되니
그 추억의 고드름을 주렁주렁 가슴에 달다.

눈바람 빔어낸 신세계 고향곡 들리나니
심장의 고동소리 산마루에 덧걸다.
아! 절경의 파노라마여, 숨이 멎는구나
어서와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라
세월을 뺄셈한 동심을 깔고 비료포대 타는 친구들이여,
들리는가? 칼바람 타고 넘는 산신령의 주문을.

산자여! 외쳐라 산은 거기에 있었노라고.

모두들 뜨거운 가슴으로 박수를 쳤다.

그 날 동기들은 천진난만하게 비료포대 눈썰매를 타며 어린아이처럼 좋아 했다. 선자령 영마루에서 서로 가져온 도시락을 점심으로 나누었고 눈 덮인 대관령 옛길, 그 오솔길을 동기들은 뾰드득 뾰드득 밟으며 마냥 즐거워하였다. 그날 대관령은 찬란함과 환희였으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

동기들이 남기고 간 그 발자국위로 오늘 서설(瑞雪)이 내린다. 벗들이 남기고 간 그 아쉬움 위로 봄눈이 포근히 내린다. 대관령! 그 산속에 내 30년 지기 중약78동기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章山 허인회 교수의 中英時選

隱几(은궤) : 팔안장에 기대며

身適忘四支(신적망사지) 몸이 쾌적하면 사지를 잊어 버리고
 心適亡是非(심적망시비) 마음이 쾌적하면 시비를 잊게하네
 既適又忘適(기적우망적) 이미 쾌적하면 또 쾌적한것을 잊업 버리고
 不知吾是誰(부지오시수)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알길 없네
 白體如槁木(백체여고목) 백가지 몸이 말라 시든 나무와 같아
 兀然無所知(울연무소지) 울연히 아는바 없네
 方寸如死灰(방촌여사회) 사방 한치의 마음은 죽은 재와 같아
 寂然無所思(적연무소사) 조용히 생각 하는바 없네
 今日復明日(금일복명일) 오늘과 똑 같은 내일
 身心忽兩遺(신심홀량유) 몸과 마음을 갑자기 잃게되네
 行年三十九(행년삼십구) 39년을 살아왔고
 歲暮日斜時(세모일사시) 항해가 저물어가고 하루해가 기울어가는때
 四十心不動(사십심부동) 나이 사십이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吾今其庶幾(오금기서기) 나는 지금 대개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네



Leaning on the Armrest

Body comfortable, you forget your four limbs;
 mind comfortable, you forget right and wrong.
 Once comfortable, you forget about comfortable.
 no longer know who you are.

Hundred body parts like a withered tree
 stolid, blank, aware of nothing:
 square inch of mind so much dead ash
 hushed and still, free of all thought
 today and the same tomorrow,
 body and mind both sloughed off.

I,ve lived thirty nine years
 and now the year is ending, sun going down.
 If at forty my mind remains unmoved
 I think I,ll almost have it!

해설

810년에 지은 시다. 白居易의 삶이 飄逸自適이라 하였다.
 모든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 내키는대로 행동하고 자적하는 삶이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비우고 四十이기에 孟子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2008 대한약사회장 입후보 동문 프로필



기호 1번

지역 대한약사회장
이름 문재빈

홈페이지

<http://www.moonpower.or.kr>

■ 신상정보 ■

■ 학력

- 부산 경남중학교 졸업
-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 정책과정 수료
- 영국 맨체스터대학 보건대학원 보건의료 정책과정 수료
-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사회행정약학 전공(약학석사)
(석사학위논문 : 의약분업 '정책실패론'에 대한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 경력

- 1978 - 서울 영등포구약사회 개국약사위원장
- 1988 - 서울 관악구약사회장
- 1993 - 서울시약사회 총무위원장
- 1993 - 1차 한약파동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여의도 집회 주도)
- 1995 - 2차 한약파동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과천집회 결성 및 시위주도로 과천경찰서에 입건)
- 1996 -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 1998 - 서울시약사회장
- 1998 - 분업추진협의회(분추협) 약사회 대표 (정부의 단계적 의약분업안 분쇄)
- 1999 - 의약정협의회 약사회 대표단장(현 의약분업안 정취)
- 2000 - 의약분업원칙 고수를 위한 약권투쟁위원회 위원장 (의약분업 훼손의 최소화에 총력)
- 1998~2004 - 대한약사회 부회장
- 현 약권수호 운동본부 고문

■ 공약

- 의약품 약국의 판매 저지
-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 대폭 확대
- 약국 양극화 문제 해결
- 성분명처방 실현 및 사후통보 폐지 추진
- 처방전 리필제 실현
- 전회원 무료 약화사고보험 가입 추진
- 약사회비와 근무약사신상신고비 인하
- 카드수수료율 인하 추진
- 약사연수교육원 설립
- 대한약사회 학술대회 개최
- 병원 30베드당 약사1인 법제화
- 병원약사 약제업무수가 현실화



기호 2번

지역 대한약사회장
이름 김 구

홈페이지

<http://www.victorykim9.or.kr>

■ 신상정보 ■

■ 학력

- 1964. 2 서울 중동고등학교 졸업
- 1964. 3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입학

■ 경력

- 1966. 7 육군입대
- 1967. 10 월남파병(주월 청룡부대 지원대대)
- 1971. 2 중앙대 약대 약학과 졸업
- 1971~1972 한국베링거인켈하임(주) 입사
- 1972~1980 서울시 용산구 거북약국
- 1974~1977 서울시 용산구 약국위원장
- 1978~1980 삼희약품(주) 상무이사
- 1980~1987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양동약국
- 1987~1988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약국
- 1988~현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김구약국
- 1989~1990 성남시약사회 부회장
- 1990~1991 경기도 약사회 홍보위원장
- 1992~1994 경기도 약사회 부회장
- 1995~1997 경기도 약사회장
- 1995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1998~2000 대한약사회 부회장
- 1999 제1회 '약업박람회' 조직위원장
- 2000 '베스트파머시컬리2000' 실행위원장
- 2002 '2002 서울 FAFAT총회' 조직위부위원장
- 2004~2007 약사공론 주간
- 2003~2007 제17회~21회 '약의날' 준비위원장
- 2007 제4차 전국약사대회 준비위원장
- 2007~현재 대한약사회 부회장

■ 공약

- 약사발전회비 폐지로 회비 인하
-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 절대 저지
- 약사의 권리, 약권살리기

 1. 의약품 약국의 판매 절대 저지
 2. 약국내 재고약 문제 해결
 3. 법제 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4. 약국경영활성화 전략 마련
 5. 약국경영환경 새 기준 제시
 6. 약사전문성 강화와 직능 확대
 7. 약사회무의 효율성 배가
 8. 약사직능의 균형적 발전
 9. 진취적인 신 약사문화 개발

행사

12월 7일 1회 동문회 모임 오전 12시

- 장 소 : 진진바라 한정식



12월 28일 안산지부 모임 오후 10시

- 장 소 : 지릭스라이브바



1월 19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1회 졸업 30주년 기념식

- 장 소 : 프라자호텔 루비홀 오후 6시
- 유정사 회장, 손의동 학장, 정찬현 사무총장 참석
- 동문회 발전기금 5,000,000원



1월 28일 23호 동문회보(봄호) 편집회의 오후 7시

- 장 소 : 반포 아주약국
- 황공용 편집위원장 · 김정수 편집위원

2월 1일 성남지부 모임 오후 10시

- 장 소 : 아탑역 무교동낙지세상
- 유정사 회장, 정찬현 사무총장 참석
- 한방파스 총2,600매 사입
- 신임 지부회장 이영준(26회)



2월 15일 안양지부 모임 오후 10시

- 장 소 : 범계역 낙지세상
- 유정사 회장, 정찬현 사무총장 참석
- 한방파스 총7,500매 사입
- 신임 지부회장 손병소(29회)



2월 17일 영등포동문회 신년모임

- 장 소 : 덕유산



2월 19일 서울시약사회 정기총회 오후 2시

- 수상자 : 대한약사회장 표창장 정덕기(23회) 동문, 양덕숙(28회) 동문



2월 21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오후 2시

- 장 소 : 학생회관 루이스홀
- 수상자 : 서울특별시약사회: 윤수연
경기도약사회 : 이효진 본동문회 : 천세웅
여자동문회 : 오지원 안산동문회 : 노선아
안양동문회 : 고종명



2월 22일 중앙대학교 약학박사 학위수여식 오전 11시

- 장 소 : 중앙문화예술관 대극장



2월 27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오후 2시

- 수상자 : 보건복지부 표창장 김승태(15회) 동문
일반표창장 이영희(20회) 동문



2월 28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입학식 오후 2시

- 장 소 : 학생회관 루이스홀



3월 16일 인천지부 정기총회 오후 6시

- 장 소 : 파라다이스호텔
- 유정사 회장, 정찬헌 사무총장 참석



3월 1일 강남지부 모임 오전 12시

- 장 소 : 양재역 한정식
- 유정사 회장, 정찬헌 사무총장 참석
- 한방파스 총3,000매 사입



발전기금 조성 내역(기수별)

총 30억 1백 9십만원 (2008. 6. 16까지)

교 수 총 20,460 만원

〈교내〉	손의동(700+500), 최영욱(1000), 염정록(700), 임채욱(500), 김하형(500), 천영진(500), 김기호(500), 한상범(500), 조사연(500),	임철부(1,000) 이민원(1000), 홍순각(600), 김대경(500), 김홍진(500), 손동현(500), 허인회(500), 이재휘(500), 김종갑(500)	김미영(1000), 김창중(700), 이도익(500), 황완균(500), 심상수(500), 이광표(500), 황광우(500), 최형균(500),
〈타교〉	김진학(1000), 오유진(300), 염윤기(300), 정지훈(200),	제동홍(500), 주왕기(300), 석대은(300), 한성순(100),	김동석(300) 임세진(300) 권광일(300) 김형춘(360)

학 생 총 5,350 만원

동문회장단 총 27,950 만원

조의환(11000), 권혁구(1000), 유영후(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박호일(800), 정재일(500), 이기만·노신희(500),
임상목(1000), 김연희(500), 이규진(500), 유정사(10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열(500), 김승재(500), 김중성(400), 김승태(400), 정찬 (400+1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홍(300)

단체 기부 총 7,050 만원

- 중삼친목회(30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7회 동기회(500)
- 64예중회 회원일동(100)
- 기업체후원(700)
- 1회 동문회(300)
- 2회 졸업생(200)
- 미주(L.A.) 3회 동기회(50)
- 미생실협반 동문회(300)
- 7회 약우회(500)
- 약대기금(3200)
- 약품물리화학동문회(300)
- 중앙대11회 40주년 기념(300)

학부모 및 기타 기부 총 500,500 만원

- 한총강 '02 한인빈 학부모, 300
- 정형식(50,000+10,000)
- 오호정(300)
-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 100)
- 중앙대 50계단회(대표:정영복) (100)

개인·부부 동문 총 2,195,400,000원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 〈1회〉 손동현(500), 이광표(500), 오유진(300), 홍흥만(300)
- 〈2회〉 고두흔·박명자 부부(700), 홍순각(500), 김길수(300), 황인규(300), 황재수(100+100), 한성순(100)
- 〈3회〉 김용옥(35000), 한만우(1000), 김석재(300), 조영만·이정자 부부(50)
- 〈4회〉 김기호(500), 허인회(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천흥기(300)
- 〈5회〉 이해석·강태일 부부(1000), 박명자·고두흔 부부(700), 이송학(300), 정훈교(100)
- 〈6회〉 임철부(1000),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종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환(300), 유상열(300), 추의호(300), 홍병석(300), 이준장(100), 홍성호(100)
- 〈7회〉 이기환(1150), 유영후(1000), 강승안(500), 김옥남(500), 이양현(500), 정재일(500), 이기만·노신희 부부(500), 김명일(300), 김정부(300), 김정웅(300), 김정자(300), 박명신(300), 박옥규(300), 유윤자(300), 이능세(300), 인고길(300), 임종홍(300), 차승현(300), 한철희(300), 정연홍(300), 조경배(300), 권기동(100), 이준중(60), 이정자·조영만 부부(50)
- 〈8회〉 이백천(1500), 임상목(1000), 김형이(500), 한석원(500), 최병준(400), 최재욱(300), 문옥자(300), 박성애(300), 박찬수(300), 윤주섭(300), 이조열(300), 장영자(300), 정재용(300), 주왕기·김희자 부부(300), 허근희(300), 김홍자(300), 배영애(100), 신현우(100), 조의환(11000)
- 〈9회〉 권혁구(1000), 김영부(500), 서황석(500), 이규진(500), 노신희·이기만 부부(500), 상병준(300), 이근배(100)
- 〈10회〉 방순환(12000), 박호일(800+500), 유정사(500+500), 서정목(300), 이대운(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송수(300), 정수길(300), 김삼균(300), 김광일(500)
- 〈11회〉 정덕호(500), 김창중(500), 황문상(500), 황공용(500), 홍금자·남기탁 부부(500), 김승업(300), 민대식(300), 박상희(300), 박찬희(300), 김정길(100), 최옥출(100), 이철규(50), 송병기(100)
- 〈12회〉 박영찬(1000), 김용환(1000), 최덕구(1000), 강옥희(500), 김 구(500), 박기진(300), 남기탁·홍금자 부부(500), 우준하(500), 이성우(500), 노덕재(300), 우홍길(300), 염윤기(300), 이정희(300), 이호섭(300), 최병호(300), 김초성(100), 민명임(100), 64예중회 회원일동(100), 심재웅, 구옥자(15회)(1000)
- 〈13회〉 안병식(1000), 이종각·박종애 부부(500), 문재빈·김애련 부부(500), 서국진(500), 조성복·홍순경 부부(500), 김중성(400), 박동규(300), 윤창현(300), 조종목(300), 김병현(500), 서효석(300), 김신미(100)
- 〈14회〉 김명용(1000), 정도연(1000), 김종열(500), 윤대봉(500), 이규식(500), 김원순(300), 정진모(300)
- 〈15회〉 조찬희(500+200), 김용익(3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인석(300), 위혜주(300)

〈16회〉 강명채(500), 홍순경·조성복 부부(500), 박종애(이종각 부부, 500), 장건(300) 최광식·전순희 부부(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이상규(300), 한인희(300), 조기현(300), 윤영로(200), 김성광(100), 권희문(100)

〈17회〉 김인형(500), 선우영환·방금숙 부부(500), 신상직(500), 김대희(4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장재인(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완표(300), 최해광(300)

〈18회〉 강응모·성낙순 부부(500), 김윤순(500), 정명진(500), 김기명(300), 조중형(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김애경(300)

〈19회〉 김경오(500), 권창호(500), 신성희(500), 권영훈(300), 김동희(300), 박호식(300), 옥태석(300), 이경옥(300), 이창욱(300), 최종숙(300), 유환성(300), 권광일(300)

〈20회〉 임경원·이현숙 부부(1,000), 박기배(300+300), 방금순·선우영환 부부(500), 이상일(500), 김현태(500), 정찬현(400+100), 김영섭(330), 강혜옥(300), 김중갑(300), 송열호(300), 서종원(3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신규(300), 이극선(300), 임구래(300), 정영수(3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정영수(300), 김형춘(360)

〈21회〉 이세진(500), 백기홍(500), 이상일(500), 백운경(500), 박제천(500), 김중호(500), 이병규(500), 박전희(500), 지기봉(500), 이상준(500), 최병철(500), 홍종오(500), 김정기(300), 김성만(300), 한성희(300), 안병현(300), 신상길(300), 송진용(300), 전명선(300), 유승률(300), 김대일(300), 강성무(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어경남(300), 이규섭(300), 전명선·김민숙 부부(300), 장철숙(100), 백운경(50)

〈22회〉 손의동(700+500), 장용운(300+500), 정진호·강명희 부부(500), 장상대(500), 김홍진(500), 고석순(500), 이준상(500), 오황영(400), 최광훈(300), 강희윤(300), 김철수(300), 박동우(300), 이영욱(300), 유대식(300+200), 이정석(300), 심재호(300), 한만영(360), 전일오(300), 이상돈(100), 〈23회〉 박종화(1,050), 권석형(500), 이도익(500), 공인호(300), 김수종(300), 김영식(300), 김항만(300), 양재업(300), 정원국(300), 이승하(300), 이원길(300), 임상규(300), 임준석(300), 정덕기(300), 박희용(100), 강호영(100), 이정대(100),

〈24회〉 최영욱(1000), 윤규형(500), 김관식(500), 최재윤·김윤경 부부, 500), 조중래(500), 김승재·김희식 부부, 500), 임무호(500), 위성건(500), 함삼균(50+300), 이범도(310), 오동근(300), 윤원철(300), 이광섭(300), 이영주(300), 정상수(300), 김상현(300), 홍용기(300), 황규진(300), 함한성(300), 이규삼(100), 김태두(300)

〈25회〉 이민원(1,000), 손현우(600), 성낙순, 강응모(500), 이재희·김은진(500), 조석현·임홍욱(500),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희섭(300), 이내홍(3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김준규(100+300), 권세형(300)

〈26회〉 심상수(500), 이창훈·이숙희 부부(500), 황완균(500), 하재일(500), 김안식(300), 김영후(300), 라중우(300), 진희역(300), 최민규(300), 문형철(3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이영준(300), 이종량(300), 정태형(300), 조용백(300), 김학철(300)

〈27회〉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홍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최면용 각각 300씩 (총 2,400), 박수길·이정애(500), 방만성·조순연(500), 김영혜·최평배(500), 최기선(310), 곽순자(300), 김정호(300),

남상진(300), 박영달(300), 변영신(300), 안희영(300), 양건모(300), 유기조(300), 오영돈(300), 현기원(300), 홍인숙(300), 이무택(300), 최충식(300), 이선애(100)

〈28회〉 임채욱(500), 이숙희·이창훈 부부(500), 김윤경·최재윤 부부(500), 김유곤(500), 김희식·김승재 부부(500), 이영주(500), 김광선(300), 김미경(300), 김영희(300), 박우중(300), 안희규(300), 양덕숙(300), 이병천(300), 이용해(300), 이해룡(300), 임세진(300), 장원규(300), 전금용(300), 조상오(300), 조효금(300), 한용문, 김미자(300), 박용석(100)

〈29회〉 김은진·이재희 부부(500), 이 준(310),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자(3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중운(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서경원(300), 이 철(300), 장우성(300), 정진호(300)

〈30회〉 김광식·윤기숙 부부(500), 서봉호(100), 조순연·방만성 부부(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신일균(300), 김현학(300), 이인재(300), 장부자(300), 조덕희(300), 천세영(300), 최병원(300), 황유세(300)

〈31회〉 이현숙·임경원 부부(1,000), 김하형(500), 김진홍(300), 변동성(300), 박건규(50)

〈32회〉 채영주(400+100), 고은미(300), 박은미(300), 조양연(300), 서수경(300)

〈33회〉 이재휘(500), 임희원(300), 강석연(300), 박재훈(240)

〈34회〉 민성철(300), 배규환(300), 이선우(300), 한일권(300)

〈35회〉 황광우(500), 곽정근(300), 권준한(300)

〈36회〉 안영운(300), 우경애(300), 임성호(300), 박선영(200), 방극상(50), 김용구(300)

〈37회〉 정병욱(300), 방준석(300), 정지훈(200), 오상희(100), 김학림(100)

〈38회〉 박웅석(300), 조재형(300), 제현동(500), 박양혜(100)

〈39회〉 박종호(300), 양성준(100), 박종혁(300)

〈40회〉 박성욱(500), 한국약품(이병두, 300)

〈41회〉 구영준(300)

〈43회〉 신명숙(300), 강규태(100+300), 김중호(100)

〈44회〉 문상희(100), 김수길(300)

지부별 통계

(단위 : 만원)

〈서울강남구 지부 17명〉

방순환(1200), 윤대봉(500), 이 준(310), 김현용(300), 박옥규(300), 김홍자(300), 정송수(300), 이정희(300), 정진모(300), 이인석(300), 김광식(300), 유대식(300), 황규진(300), 서경원(300), 신명숙(300), 이근배(100), 정훈교(100)

〈서울강동구 지부 12명〉

조성복, 홍순경(500), 김삼균(300), 김용익(300), 어경남(300), 오동근(300), 강철선(300), 이선우(300), 권준한(300), 안영운(300), 박웅석(300), 조중목(300)

〈서울강서, 양천구지부 13명〉

유상열(300), 박찬수(300), 민대식(300), 노덕재(300), 박호식(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최두주(300), 이용해(300), 이종민(300), 강대용(300), 임성호(300), 김애경(300)

〈서울관악구지부 8명〉

이기안, 노신희(500), 문재빈·김애련(500), 김종열(500), 박석동(500), 이상규(300), 안희영(300)

〈서울마포구지부 2명〉

오영돈(300), 양덕숙(300)

〈서울광진, 성동구지부 4명〉

양희익(300), 김영식(300), 유승률(300), 권희문(100)

〈서울구로,금천구지부 8명〉

이해석·강태일(1000), 정진호,강명희(500), 김경희(300), 이호섭(300), 이경욱(300), 오상희(100)

〈서울노원구지부 4명〉 방만성·조순연(500), 이병규(500), 김수길(300)

〈서울동대문구지부 3명〉 김경호(500), 김종구(300), 신정숙(300)

〈서울동작구지부 7명〉

고두흔·박명재(700), 이종각·박종애(500), 안명현(300), 조기현(300), 김영희(300),

〈서울서대문구지부 5명〉

한석원(500), 장용운(500), 정명진(500), 유인석(300), 문옥자(300)

〈서울서초구지부 10명〉

황공용(500), 추익호(300), 이능세(300), 장영자(300), 안민철(300), 김기명(300), 박계환(300), 이규삼(100), 이선애(100), 이준장(100), 김광일(500)

〈서울성북구지부2명〉 조찬휘(300+200), 유종관(300)

〈서울송파구지부 7명〉

이규진(500), 김명부(500), 위성건(500), 김영일(300), 김미경(300), 정태형(300), 진희역(300)

〈서울영등포구지부 7명〉

권혁구(1000), 유정사(500+500), 이상일(500), 김대일(300), 전금용(300), 강규태(100+300), 박운경(50), 심재용·구옥자(1000)

〈서울용산구지부 5명〉

故이규식(500), 박명신(300), 이조열(300), 배영애(100), 서봉호(100)

〈서울은평구지부 10명〉

임상묵(1000), 윤주섭(300), 정재용(300), 정갑진(300), 선우일원(300), 배규환(300), 곽정근(300), 우경아(300), 정병욱(300), 문상희(100)

〈서울종로구지부 13명〉

황문상(500), 강옥희(500), 최광식·전순희(500), 전상훈 (300), 주완표(300), 조중형(300), 임준석(300), 함한성(300), 박우종(300), 이병천(300), 최명용(300), 이해룡(300)

〈서울중구지부 2명〉 박영찬(1000), 조규동(300)

〈서울중랑구지부 2명〉 한인희(300), 정덕기(300)

〈인천시지부 22명〉

유영후(1000), 선우영환·방금숙(500), 조석현·임흥옥(500), 박제천(500), 지기봉(500), 신상길(300), 이양현(500), 김대회(400), 장용운(300), 윤춘수(300), 장재안(300) 전명선·김민숙(300), 김수중(300), 김안식(300), 문형철(300), 최병원(300), 김현학(300), 전명선(300), 김용구(300)

〈경기 군포시 1명〉 이영주(500)

〈경기 동두천시 1명〉 최광훈(300)

〈경기 김포시 1명〉 김중성(400)

〈경기고양시지부 15명〉

이재희·김은진(500), 이상준(500), 박기배(300+300), 함삼균(50+300), 신성희(500), 김춘규(100+300), 김수길(300), 이연수(300), 한용문·김미재(300), 홍인숙(300), 박선영(200), 박건규(50), 방극성(50)

〈경기광명시지부 16명〉

안병식(1000), 김관식(500), 김형이(500), 최기선(310), 이송학(300), 인고길(300), 이양원(300), 김병무(300), 공인호(300), 임상규(300), 장부재(300), 고은미(300),

민성철(300), 송진용(300), 박재훈(240), 김종호(100)

〈경기부천시지부 6명〉

이창훈·이숙희(500), 김유근(500), 김미영(300), 임희원(300)

〈경기성남시지부 16명〉

손현우(600), 김 구(500), 김인형(500), 최병호(300), 서종원(300), 강성무(300), 김철수(300), 김항만(300), 윤원철(300), 변영신(300), 서정목(300), 박상희(300), 유기조(300), 변동성(300), 박종호(300), 이영준(300)

〈경기수원시지부 22명〉

임경원·이현숙(1000), 김현태(500), 이세진(500), 강응모·성낙순(500), 채영주(400+100), 김영혜·최평배(500), 김청길(300), 이내홍(300), 김영후(300), 김영재(300), 홍흥만(300), 김정재(300), 권세령(300), 한일권(300), 이무택(300), 최충식(300), 정연홍(300), 윤영로(200), 신현우(100)

〈경기시흥지부 4명〉

조양연(300), 상병준(300), 유종운(300), 장우성(300)

〈경기안산시지부 17명〉

김승재·김희식(500), 최재운·김윤경(500), 이범도(310), 김석자(300), 이창욱(300), 박복자(300), 김덕진(300), 오순용(300), 오홍철(300), 이상필(300), 이창오(300), 한봉길(300), 장원규(300), 이현수(300), 서호석(300)

〈경기 구리시 3명〉 최덕구(1000), 황인규(300), 김희섭(300)

〈경기 과천시 1명〉 강하윤(300)

〈경기 안양시지부 21명〉

정찬현(400+100), 안병한(300), 박동규(300), 위혜주(300), 최해광(300), 이극선(300), 이신규(300), 임구래(300), 현기원(300), 박영달(300), 양건모(300), 안희규(300), 안성진(300), 이 철(300), 손병로(300), 신일균(300), 김진홍(300), 조용백(300), 민명임(100), 이상돈(100), 이철규(50)

〈경기파주시지부 1명〉 권창호(500)

〈경기평택시지부 8명〉

박수길·이정애(500), 김영섭(330), 김정부(300), 한철희(300), 최운환(300), 양재업(300), 라중우(300),

〈경기 오산시 1명〉 이원길(300)

〈경기 용인시 2명〉 김광식·윤기숙(500)

〈경기 하남시 2명〉 한성희·이현수(300)

〈경기 화성시 3명〉 송창수(300), 이정석(300), 김정호(300)

〈경기 포천군 1명〉 차승현(300)

〈전북지부 1명〉 김종갑(300)

〈울산광역시 1명〉 이정대(100)

〈경북칠곡군 1명〉 유환성(300)

〈경북김천시 6명〉

심재호(300), 최재욱(300), 김성만(300), 김길수(300), 김정기(300), 조경배(300)

〈경북 지부 안동지부1명〉 임무호(500)

〈경북의성군 1명〉 전일오(300)

〈대구 광역시 7명〉

김용환(1000), 장상대(500), 우준하(500), 김윤순(500), 백기홍(500), 정영수(300), 최중숙(300)

〈대전시지부 3명〉 이규섭(300), 고석순(500), 홍종오(500)

〈전북 김제시 1명〉 최병준(400)

〈충남 보령시 1명〉 정덕호(550)

〈충남 홍성시 1명〉 조덕희(300)

〈충남천안시지부 2명〉 김선기(300), 최옥출(100)

〈충남아산시지부 1명〉 백운경(500)

<충북제천시지부 3명> 하재일(500), 홍성호(100), 송병기(100)

<경남 창원시 1명> 김광선(300)

<경남밀양 1명> 정용국(300)

<부산시지부 26명>

이백천(1000+500), 홍금자·남기탁(500), 조종래(500),
우홍길(300), 김원순(300), 옥태석(300), 강혜옥(300),
차재근(300), 송열호(300), 이영주(300), 김상현(300),
백낙기(300), 이종량(300), 남상진(300), 황유세(300),
박은미(300), 김정길(100), 김초성(100), 박용석(100),
강호영(100), 장철숙(100+100), 권기동(100), 이현영(300),
황인영(300)

<제주지부 3명> 오황영(400), 박기진(300), 김병현(500)

<강원지부 3명> 김정웅(300), 이인재(300), 김학철(300)

<미주지부 16명>

이기환(1150), 서황석(500), 김옥남(500), 박성애(300),
조재형(300), 김성광(100), 김학림(100), 이준중(60),
조영만·이정재(50), LA3회 동의회(50)

<병원 5명>

이대윤(300), 김승업(300), 박찬희(300), 윤창현(300),
이광섭(300)

<학계 38명>

최영욱(1000), 임철부(1000), 김미영(1000), 이민원(1000),
김창중(700), 엄종록(700), 손의동(700+500), 홍순각(600),
이도익(500), 임재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천영진(500),
황광우(500), 한상범(500), 이재휘(500), 최형균(500),
조사연(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이광표(500),
김종갑(500), 손동현(500), 고성관(300), 권광일(300),
석대은(300), 주왕기·김회자(300), 오유진(300),
임세진(300), 엄윤기(300), 한성순(100), 김진학(1000),
김동석(300), 제현동(500), 정지훈(200)

<제약계 및 기업, 공직 44명>

정형식(50,000+10,000), 김용옥(35000), 조익환(11000),
박종화(1050), 한만우(1000), 김명웅(1000), 정도연(1000),
박호일(800+500), 윤규형(500), 강승안(500), 권석형(500),
서국진(500), 강명채(500), 이성우(500), 이상일(500),
천흥기(300), 홍병석(300), 장영조(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정영수(300), 지태현(300), 김수배(300),
박동우(300), 이승하(300), 정상수(300), 홍용기(300),
김영식(300), 조순현(300), 정진호(300), 천세영(300),
이병두(300), 구영준(300), 박희용(100), 최병철(500),
김중호(500), 박진희(500), 이성욱(500), 박성욱(500),
이준상(500), 장 건(300), 이영욱(300), 방준석(300),
한만영(360), 강석연(300), 서수경(300), 박양혜(100),
오호정(200), 양성준(100)

<기타 29명>

학생회(5350), 약대기금(3200), 기업체후원(700), 정재일(500),
김연희(500), 동기회(500), 약우회(500), 허근희(300),
권영훈(300), 최민규(300), 91학번친목회(300),
중삼친목회(300), 박노일(300),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임종홍(300), 김동열(300), 한충강(한인빈 학부모)(300),
유윤자(300), 박정배(300), 곽순자(300), 1회 동문회(300),
박종혁(300), 약품물리화학반 동문회(300) 64예중회(100),
송병준(100), 황재수(100+100),
중앙대 11회 40주년 기념(300),
중앙대 50계단회(정영복)(100), 김신미(10), 2회 졸업생(200)

장학금 수여식



2008년도 1학기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전공	학년	수혜자명	평 점	성별
본동문회 (7,000,000)	700,000	약학	2	이석영	3.89	여
	700,000	제약	2	최서희	3.92	여
	700,000	약학	3	장재영	3.85	남
	700,000	제약	3	최유진	3.85	여
	700,000	제약	3	임영미	3.82	여
	700,000	약학	4	박은정	3.95	여
	700,000	약학	4	손예성	3.85	여
	700,000	약학	4	최희정	3.80	여
	700,000	제약	4	류미란	3.95	여
	700,000	제약	4	노유진	3.89	여
부산동문회 (500,000)	500,000	제약	3	조성훈	3.76	남
안산동문회 (500,000)	500,000	제약	4	홍성훈	3.73	남
여자동문회 (1,000,000)	500,000	약학	2	김지현	3.85	여
	500,000	제약	3	김지선	3.80	여
ROTC동문회 (500,000)	500,000	제약	4	최신형	2.69	남
약제반동문회 (1,000,000)	1,500,000	약학	3	김남곤	2.47	남
약수회동문회 (1,800,000)	1,800,000	약학	3	강영구	2.35	남
나사모동문회 (1,000,000)	1,000,000	제약	4	박지영	3.97	여
약품물리 화학반동문회 (500,000)	500,000	약학	4	이창주	2.65	남
한미약품(주) (4,450,0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합 계 : 18,750,000						

동문회비 및 기금납부자

회장단회비 (연 240,000원)

<10회>	유정사, 김정남, 방순환, 변도문, 이대윤, 이영민, 정수길, 조규동
<11회>	황공용, 정덕호, 황문상
<12회>	이관하, 노덕재, 이호섭, 이호훈, 김 구, 이성우
<13회>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최창엽
<14회>	조길도, 윤대봉, 현수홍, 김중렬
<15회>	임영식, 김승태, 김용의, 조찬휘
<16회>	최광식, 허사길
<17회>	김성지, 양희의, 선우영환, 신상직, 장재인, 주완표
<18회>	김기명, 조중형, 김애경
<19회>	이경옥, 박효식, 김경오
<20회>	이신규, 김현태, 박기배, 정찬현, 유영내
<21회>	김수배, 홍종오, 이세진
<22회>	강희운, 이현희, 차달성, 유대식, 최광훈
<23회>	김영식, 박종화, 임준석, 정덕기, 하중렬
<24회>	이규삼, 김승재, 이범도, 함삼균, 김관식
<25회>	최두주, 이내홍, 조석현
<26회>	김정수
<27회>	최면용, 박영달, 현기원, 오순용, 연정희
<28회>	안희규, 이상수, 양덕수, 김영희, 박순자
<30회>	김광식, 고석일, 김경자

이사회비 (연 120,000원)

<1회>	손동현, 조덕렬, 홍홍만, 김기홍, 김옥동, 이동화
<2회>	지선훈, 최관용, 이문규, 정덕화, 황재수
<3회>	최종득, 오세형, 박중순, 이병균, 이기상, 노인배
<4회>	김현용, 천홍기
<5회>	김재윤, 이승학, 박영규, 김명섭
<6회>	안인혁, 최길영, 안병한, 임완호, 김경희, 박정배, 류관열, 유상열, 진교성, 전희태
<7회>	이기안, 정재일, 서명규, 김정부, 유영후, 김영일, 이양현
<8회>	조익환, 허근희, 박번일, 박도규, 곽유환, 김희영, 김신자
<9회>	문영동, 이근배, 김홍래, 권혁구, 박장우, 김영빈, 박성학, 강군모, 윤광로, 최영근, 이규진
<10회>	박호일, 전수원, 주정덕, 장영조, 박광일, 이원일, 이홍수, 이양원, 심수일, 전광식, 서정목, 이동철, 김명민, 이장열
<11회>	최옥출, 박찬희, 김승업, 김창중, 남복식, 김미자, 박희경, 신명승, 이석태
<12회>	우준하, 심재웅, 최병호, 조택상, 강옥희, 박영찬, 이정규
<13회>	이상길, 이종각, 안병식, 황근성
<14회>	현수홍, 박기진, 김명웅, 양인승, 홍성철, 유효성, 엄태항, 정도언
<15회>	박원봉, 김형수, 이명숙, 권영선
<16회>	최창원, 권영복, 이은솔
<17회>	김인혁, 김성지, 김재천, 이동우
<18회>	김애경, 강응모, 여운숙
<19회>	신성익
<20회>	권오규, 이호선, 최석중, 이극선
<21회>	김중호, 전명선
<22회>	손의동, 오황영
<23회>	권석형
<24회>	윤규형, 김정우, 황규진, 김정일, 오세홍, 정종근
<25회>	김희섭
<26회>	김정수A, 진희역
<27회>	김정호, 오홍실
<28회>	김희식
<29회>	서경원
<30회>	최병원

일반회비 (연 20,000원)

<1회>	조성애
<2회>	최영대, 김좌상, 김성빈, 박필일, 박병한
<3회>	오순실, 임종환, 손석우
<4회>	김영대, 최중화, 홍범표, 이영아
<5회>	김중무, 손규산, 임형철, 이부영, 민홍식, 김원전
<6회>	유복상, 문종찬, 이성호, 유승균, 이종호, 신의명, 황선창, 홍성호, 김영기, 이풍기, 정진석
<7회>	김병익, 정연홍, 김불한, 인고길, 조경신, 안기현, 조익중, 유효희, 조근행, 차승현
<8회>	권태수, 엄규중, 최영자, 김일래, 홍신표, 최승치, 이영복, 김재학, 최문정, 임성빈, 정달수, 조수현, 정재영, 임진택
<9회>	이병호, 박정자, 권오성, 윤경자, 정석태, 김영창, 이만규, 신우식
<10회>	김영민, 민병창

<11회>	차영진, 남기택, 손영수, 유홍문
<12회>	이순우, 이만우, 정재균, 김두희, 윤석봉, 김대건, 문혜성, 김광혁
<13회>	안상희, 김영옥, 유용삼, 최승기, 왕문희, 김인호, 손찬규, 김형운, 유희동
<14회>	김동현, 이병조, 조병화, 안태화, 구중모
<15회>	나인준
<16회>	김선기, 박상환, 박종애, 이재용
<17회>	김상진, 윤종관, 박재식
<18회>	윤순석, 유득운, 김청길, 남애숙, 유덕희, 홍현식
<19회>	남윤수, 최원섭, 김성연, 조안제, 김동희
<20회>	이광연, 황양호, 방금숙, 김영업, 임경원, 안연준, 남덕자, 최용철, 박지순
<21회>	이훈연, 이상준, 송주식, 정재일, 조홍윤
<22회>	고경인, 한만영, 김태일, 이순명, 신이철, 양희복, 엄태희
<23회>	최병일, 나용태, 윤명숙, 천경호, 한병철, 오신환
<24회>	김기준, 홍용기, 정상수, 정순경, 최금순, 심영철, 박길태
<25회>	송태수, 이승정, 위성건, 백광현, 이영재, 강만식
<26회>	이영준, 박주돈, 최옥숙, 정기춘, 조병호, 부성식
<27회>	이현수, 박상규, 변옥희, 문연숙, 김창식
<28회>	박우중, 조상오, 이용해, 한성호
<29회>	한규인, 장우성, 안성진, 박준화, 이상원, 김현태, 백승권
<30회>	홍영미, 조민숙, 광필선, 손은실, 김영림, 강현주, 강성철
<31회>	서경찬, 이준노, 이경희, 최윤실, 김미혜, 박희선
<32회>	김형기, 김철우, 김광복, 이명선, 안승희, 김미성, 육혜경
<33회>	최현정, 김소정
<34회>	김종국, 이규희, 김성현, 박상권, 이 준
<35회>	김 진
<36회>	정혜미, 채미선, 장문정, 강정희, 홍성원
<37회>	박정면, 김정미, 한덕희, 조구욱
<38회>	정필련
<39회>	임재용, 방근철
<41회>	이미경
<43회>	남주영, 이현선
<44회>	고정봉
<46회>	김은수, 김윤경, 김진우
<48회>	이지영
<50회>	정홍근, 조정아, 정원희

회원경조 소식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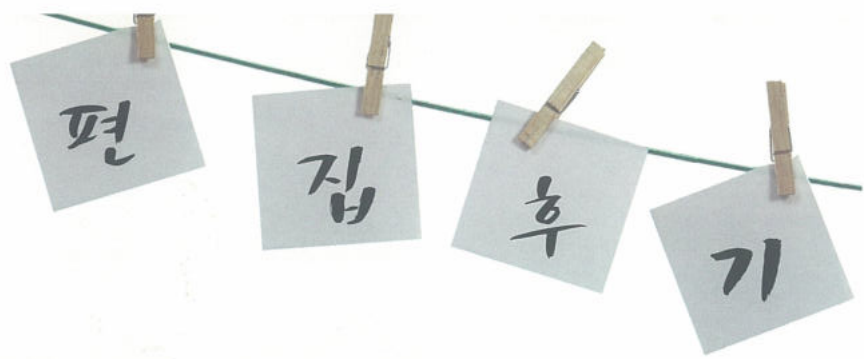


11월 24일	정영기(10회) 동문 자녀결혼
12월 8일	김정남(10회) 부회장 자녀결혼
1월 27일	박성학(9회) 이사 자녀결혼
3월 8일	이관하(12회) 부회장 자녀결혼
3월 30일	김승태(15회) 부회장 자녀결혼
4월 26일	조택상(12회) 이사 자녀결혼
5월 17일	서국진(13회) 부회장 자녀결혼

부음



12월 2일	강만식(25회) 동문 부친상
12월 8일	반수호(26회) 동문 부인상
12월 23일	최민규(26회) 이사 모친상
1월 7일	신상직(17회) 부회장 모친상
1월 10일	유금식(7회) 동문 별세
1월 13일	박종진(30회) 동문 부친상
1월 26일	유환성(19회) 동문 별세
3월 2일	이상규(15회) 동문 부친상
3월 5일	김춘규(25회) 이사 빙부상
3월 8일	박희경(11회) 동문 모친상
3월 26일	김창중(11회) 교수 모친상
3월 26일	송주식(21회) 동문 모친상
3월 27일	최병일(23회) 동문 부친상
6월 3일	엄태항(14회) 이사 빙부상
6월 6일	전광우(18회) 이사 빙부상
6월 7일	권오규(20회) 이사 부친상
6월 10일	권송상(26회) 동문 부친상



2008년 초여름의 동문회는 열기가 뜨겁다

대한약사회장에 입후보한 동문후보 단일화를 요청하는 전동문들의 뜨거운 요청 때문이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회장단회의를 거치고도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채 동문 개인들의 판단에 맡기는 사실상 동문회 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정기총회에서 그대로 표출되었다.

7월 10일에야 식혀질 선거 결과는 동문회를 향한 냉기가 될까 염려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나무를 심어야 한다” 우리 동문회의 푸르른 숲을 만들기 위해...

황공용 (11회) 편집위원장

승리했을때 행운으로부터 떠나라. 명성있는 도박사들은 늘 그렇게 한다.

자신의 승리가 충분하고 위대할때 이를 안전하게 하고 위험을 막아야 한다.

오래 지속 되는 행운은 언제나 의심스러운것 .

중단된 행운이 더 안전하며 그 맛도 더 달콤하다.

큰 행운의 은총은 종종 그 지속이 짧은 것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중

김기명 (18회) 편집위원

22호 가을호 정정보도

■ 5p 軒詩 ➔ 獻詩, 一古一樂 ➔ 一苦一樂.

■ 24p 김광식(30회) 동기회장 ➔ 고석일(30회) 동기회장.

■ 28p 7월 14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ROTC모임

- 김홍진(20회) 회장 ➔ 정명진(18회) 회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욕심내세요, 당신의 평생건강

녹십자의 평생건강 네트워크가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 녹십자생명보험

+ GC헬스케어

+ 녹십자의료재단

+ 목암생명공학연구소

계약에서 생명보험, 세포치료와 건강검진, 건강컨설팅까지
건강의 모든 것을 보살펴 드리는 그린크로스케어! 이제 평생건강의 꿈이 더 가까워집니다

- + 녹십자 생명공학 분야에서 축적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건강생활에 꼭 필요한 생물학적제제의 연구/개발
- + 녹십자생명보험 녹십자의 건강네트워크를 통해 보장은 물론 예방 차원의 사전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신개념 건강전문보험
- + 녹십자의료재단 세계 수준의 임상검사 Lab과 연계된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검사와 유전자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건강검진서비스
- + GC헬스케어 병원예약, 개인별 건강컨설팅, 모바일건강정보 등 모든 건강관련 서비스를 알아서 챙겨드리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 + 목암생명공학연구소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신약의 연구, 세포치료제, 제대혈은행 및 맞춤형치료의 연구/개발



황사의 피로회복제는 셋바람
강아지들의 피로회복제는 새로 산 구두
따분한 교실의 피로회복제는 친구
독도의 피로회복제는 태극기
꽉 막힌 도로의 피로회복제는 음악
대화 없는 식탁의 피로회복제는 촛불
경기장의 피로회복제는 환호성
연인들의 피로회복제는 첫눈
태안반도의 피로회복제는 자원봉사

대한민국엔
4800만가지 피로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엔
4800만가지
피로회복제가 있다

당신의
피로회복제는?



www.pipul.com



우리어머니 관절에도
오늘부터 오스테민!

오래가는 관절염 치료엔 오스테민®

관절염 그동안 지긋지긋하셨죠,
이제 의약품으로 제대로 치료하십시오
오스테민은 글루코사민 중에서도 효능이
입증된 결정형산글루코사민이 들어있어
단순한 통증완화가 아닌 연골의 생성 및
퇴화방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관절염 치료제 글루코사민 「오스테민」으로 시작하십시오



- 결정형산글루코사민은 이탈리아의 로타사에서 처음 개발하여 미국, 유럽 등지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 미국의학협회지에 수록된 3년간의 임상실험결과 연골의 생성과 퇴화방지에 효과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이므로 6주 정도 꾸준히 복용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을 만든 삼진제약 의약품으로
믿을 수 있는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을 입력하세요



SAMJIN

삼진제약주식회사

소비자 상담전화 : 080-082-1234 (수신자부담)

광고심의필 : 952-0700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오스테민®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입니다



21세기 新 한방의학을 만들어가는
아이월드는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웃음을 드리는데

아이월드를 만나세요



천탁에스 (소시호+양약)
오래된 감기 (기침·가래·오한) 비타민C 함유



월드로신(은교산)
인후염·편도염·기관지염·중이염·제반염증



아르네신
습진·피부염·알레르기



구바파
구내염·구순염·설염



(주)아이월드제약
<http://www.i-pharm.kr>

·본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898 신원비전타워 706호
TEL : (02) 597-1020 FAX : (031) 478-8840

·공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0-1
TEL : (032) 815-2751 FAX : (032) 815-2753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fos.com

<http://www.caupharm.or.kr>